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<b>배포일</b>		2020. 3. 5. / (총 5매)	
중앙사고수습본부 의약계협력팀	팀장 담당자	김국일 신재귀	044-202-2420 044-202-2405
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	팀장 담당자	김현숙 박광훈	044-202-3490 044-202-3158

##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급 방식 일원화한다

- 의료인에게 안정적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달청을 통해 일괄 계약, 의료계 4개(의협·병협·치협·한의협) 협회에서 각 의료기관에 배분·관리 -

□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**(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,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)는 「**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(3.5.)**」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·배분한다고 밝혔다.

○ 이 대책에 따라 의료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분된다.

□ 지금까지는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\*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납품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에게 마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료계 4개 협회 책임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.

\* 3개 판매처(유한킴벌리, 케이엠헬스케어, 메디탑) +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 의사협회

○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여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하고, 각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하게 된다.

\* (기존) 생산업체 → 공적판매처(개별계약) → 의료기관

\*\* (변경) 생산업체 → 조달청(일괄계약) → 4개 협회 → 의료기관

- 마스크를 공급받은 4개 협회(병원협회, 의사협회, 치과의사협회, 한의사협회)는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각 마련하여 마스크를 배분하게 된다.
  -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각 협회로 마스크 공급요청 신청을 해야 한다.
    - \* ▲ 병협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▲ 의협: 의원급 의료기관
    - ▲ 치협: 치과의원, 치과병원, ▲ 한의협: 한의원, 한방병원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.
  - 또한, 회원·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각 협회에서도 적극 동참\*하기로 했다.
    - \* 마스크 배분 관련 의료계 협의 실시(보건복지부, 의료계, 3.4일·3.5일)
- 초기 유통망이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각 협회별로 시·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직접 배송 등 최대한 빠르게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  - 각 협회의 중앙, 시·도, 시·군·구 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협회와 함께 배분된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「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」를 구축할 예정이다.
  -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고,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보건복지부, 의료계 4개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,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.

- 계약 주체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), 각 협회별로 누리집, 협회신문 등을 통해 공급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, 콜센터 또는 상담전화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.
  
-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“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,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도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※ 각 협회별 문의 연락처

- 대한병원협회 : 02-705-9231~2
- 대한의사협회 : 1566-5058
- 대한치과의사협회 : 02-2024-9100
- 대한한 의사협회 : 02-2657-5061, 5050

< 붙임 > 주요 질의·답변(Q&A)

**붙임**

**주요 질의 · 답변 (Q&A)**

**Q1.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?**

- 지금까지는 생산업체 → 공적판매처 지정(3개 민간업체, 병협, 의협, 치협, 한의협) → 의료기관에 공급 · 판매하는 방식
- 앞으로는 “조달청”을 통해 일괄 계약하고, 의료기관 수요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
  - 보건의료 각 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배분되도록 하여 의료계 현실에 맞는 배분 가능

기존	개선
생산업체 → 공적판매처(개별계약) → 의료기관	생산업체 → 조달청(일괄계약) → 4개 협회 → 의료기관

**Q2. 협회를 통해 공급하는 이유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기관으로 공급할 것인지(유통체계)?**

- 의료기관의 마스크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 실정에 맞는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
- 의사협회 등 각 협회는 시 · 도, 시 · 군 · 구별로 조직을 갖추고 있어, 각 조직을 통해 배분될 예정
  - 이와 함께 기존의 유통업체(병협), 자체 판매 Mall(의협, 한의협), 택배(치협)를 활용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병행될 예정
- 배송체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상담 전화 운영 예정

Q3. 각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는 마스크 공급에서 배제 가능성은 없는지?

- 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회원·비회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비회원 배제 금지 등 배분 원칙을 적극 이행하기로 하였음
- 배분 과정에서 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배분 물량 축소 등의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각 협회에 주지시키고 회원에게도 알리도록 하였음

Q4. 각 협회에서는 의료기관 수요를 어떻게 받을지?

- 각 협회에서는 마스크 신청을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할 계획이며, 적정 마스크 배포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
- 동 원칙을 바탕으로 시군구 지회별로 일선의료기관의 수요를 받고 이를 반영하여, 협회 차원에서 시·도 지부, 시·군·구 지부로 적정 마스크 물량을 공급할 예정임

Q5. 적정 공급을 어떻게 파악·점검할 것인지?

- (수요 파악) 각 협회별 시·도 지부, 시·군·구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요 파악
- (사적 사용 제한) 의료기관 신청서·수령증 작성 시, 사적 사용을 확인하여 추가물량 배분 제한 등 조치를 할 계획임
- (모니터링) 수급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, 의료계와 협력하여 실제 현장의 적정 배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임
- 당분간 격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, 의료계, 유통업체 등과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수급상황을 확인,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